

에너지절약컨설팅 전문회사 - (주)알씨씨

(주)알씨씨(대표 문승재)는 포스코 사내벤처 7호(RCC)로 2003년부터 2년간 활동해 오다 2005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알씨씨는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탄탄한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정책 인프라를 구축, 지난 4월 중순경 ESCO에 등록하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 오혜은 기자 hi9187@hanmail.net



▶ (주)알씨씨 문승재 대표이사

21세기 최대이슈인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강화되면서 에너지절약 활동에 대한 기업체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주)알씨씨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과 화학산업의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실용적이며, 실무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문승재 대표 이하 임직원 9명이 포항에 본사를 두고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

현재 국내의 다수 기업체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절약활동 주체로서, 프로젝트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술 컨설팅을 포함한 실제 설비설치 등의 다양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알씨씨는 단순한 에너지절약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업체 기후변화협약 대응 컨설팅을 위한 잠재량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공정진단에서부터 엔지니어링, 적용까지 추진하고 있다.

문승재 대표는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연계한 공정진단 및 에너지절약 설비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등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씨씨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료가스 예열기술과 고효율화 연소기술의 적용 확대를 위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에너지절약 선진기법 및 신기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넓은 경험과 탄탄한 기술력 보유

알씨씨는 지역혁신 기술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정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강화했으며 인력의 기술레벨업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에너지진단사 교육(열진단, 전기진단 과정) 및 DNV, BSI 등의 성과 측정 및 검증 교육 등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에너지절약 활동 주체들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설비 공급사들과의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 국내 ESCO업체에 대한 벤치마킹 및 공동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씨씨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공동으로 개발한 가열로·연소로 연료가스 예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기술은 포스코 가열로에 실적용 테스트 중이다. 일본, 미국 등 선진 기법을 응용해 개발한 에너지절감 기법과 기업체 기후변화협약 대응 시나리오, 에너지설비 분석·해석기술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의 구축,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기법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보급처로는 (주)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포철산기(주)와 현대제철(주), 포스코건설(주) 등이 있다.

문 대표는 “철강 분야는 물론이고 타 분야에도 사업을 확대하여 지구환경 보호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러 가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라며 “그동안 구축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기후변화 관련 정책·기술 인프리와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사가 보유한 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해 국내외 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